

“수인산성 국가 사적지 지정을”

왜구 막던 역사적 유적지 … 훼손된 채 방치

백제시대 성벽 등 보존 … 체계적 연구 시급

전남 서남해안 주민들을 왜구로 부터 보호했던 수인산성이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어 체계적인 학술조사와 함께 국가 사적지 지정이 시급하다는 지침이다.

강진과 장흥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수인산성은 성벽 등이 완벽하게 보존돼 있는데다 백제시대 기법으로 돌담을 쌓아 옛 산성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산성 정상에 물을 가뒀다 흘려 보낼 수 있는 수구가 남아 있어 학

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학술조사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성곽이 수풀에 가려보이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관할 자체가 강진과 장흥으로 나뉘져 있는데다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지 않아 성곽 보수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보수에 투입된 비용은 7천만원에 불과해 학술적 가치에 비

해 관리 손길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장흥·영암이 지역구인 유선호 국회의원은 “시급히 보호해야 할 문화 유산인 수인산성이 당국의 무관심으로 훼해받고 있다”며 “올해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국가 사적이나 명승지로 지정하고 전면적인 학술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한편 장흥군은 내년에 학술용역조사 및 성벽·산책로 보수를 위해 2억5천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2009년 사적지 지정을 문화재청에 신청할 방침이다.

/정홍=김용기기자 kykim@

전국 새 농민회 회장단·여성봉사단 600여명

내년 4월 함평에 모인다

전국 새 농민회 사·군 회장단과 여성봉사단 600여 명이 합평으로 모인다. ‘2008 합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기간인 내년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2일간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와 액스포 공원 일원에서 ‘전국 새 농민회 사·군 회장 전국대회 및 새 농민 여성봉사단 발족식’이 개최된다.

지난 72년 결성된 새 농민회는 농가소득 증진과 영농 과학화 및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선도 농업인들의 모임으로 전국에서 7천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석형 군수는 “9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열렸던 나비축제와 세계 최초의 친환경 엑스포인 ‘2008 합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를 개최하는 경험과 저력을 바탕으로 손님 맞이에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평=박영진기자 pyj4079@

목포시 주부기자 문집

‘비파 뜨락의 향기’ 발간



목포시가 주부여기자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활동상을 담은 문집인 ‘비파 뜨락의 향기’를 발간했다.

200여 페이지의 이 문집에는 정종득 시장의 발간사와 주부 명예기자 38명의 시·수필로 꾸며져 있다.

또 외달도 자연문화활동, 귀성객맞이 행사 등 그동안의 활동사진이 파노라마처럼 엮여져 있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발간사에서 “정과 사랑, 그리고 추억과 희망이 살아 숨쉬는 작품집을 만나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정의 메신저로서 목포가 해양·관광·물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부 명예기자 제도는 평범한 가정주부들의 생각이나, 불편사항 등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목포=임영진기자 lyc@



‘사랑의 이불 기증식’

장흥관내 독거 노인 대상

장흥군이 24일 군청 현관 앞에서 사랑의 이불 기증식을 열었다.

가산건축사(대표 정기호)와 님프



월동배추 뚫기 한창

강진의 한 들녘에서 배추포기를 뚫는 아낙네들의 손 놀림이 바쁘다. 지난 10월에 피종한 월동 배추는 한겨울을 난 뒤 내년 초 수확을 하게 되는데 속이 꽉 차고 얼지 않도록 노끈으로 뚫는 작업을 하고 있다.

/박진기자 lucky@kwangju.co.kr

여수시 中企발전기금 1,700억 지원

업체당 2억 한도 2년간 연 3% 이자

여수시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1천 7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발전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여수시에 공장을 두고 가동중인 중소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 지역특산화 상품 생산업체

등이다.

지원 조건은 업체당 최고 2억 원 한도에서 2년간 융자해 주고 대출금리는 은행별 응자시점의 기준 금리를 적용하되 여수시에서 3%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한은행에서도 응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

결, 대출 취급기관을 기준 9개 은행에서 10개 은행으로 확대했다.

여수시는 올해에도 113개 업체로부터 213억 원의 응자신청을 받아 91개 업체에 159억 원을 지원했으며 중소기업발전자금에서도 843개 업체 1천 15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문의 (061-690-2415)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친환경농업 평가

구례군 최우수군

구례군이 전남도 주관 ‘2007 친환경농업 자체단체분야 최종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 상 사업비 3억 원을 받는다.

구례군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이 16개 품목, 2천 524ha로 2006년에 비해 330% 늘었으며 전체 경지면적의 41%를 점유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유통 축산분야에서는 구례군 융본면에 위치한 친환경기업 F&B (대표 강덕원)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F&B는 밭아통밀가루, 보리순 등을 100여 종 생산해 2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저소득층 건강 검진비 지원

신안군 1인당 20만 원씩

신안군이 저소득 주민에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신안군은 내년부터 저소득 세대 중에서 종합검진을 받지 못한 가족 2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의 종합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또 겸진 받는 주민의 건강상태를 전산 입력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종별 발전시에는 긴급지원 사업과 연계, 300만 원까지 병원비도 지원한다.

이밖에 신안군은 보건, 의료,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 복지타운을 조성하고 공중목욕장, 노인전문요양 병원 신축에 나선다.

/신안=조원남기자 wncho@

산간·섬 지역도 초고속 인터넷

내년까지 97억 들여 망 구축 마무리

전남지역 산간이나 섬 등 오지에도 내년까지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이 마무리돼 어디서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부터 국비 25%, 도·시·군비 25%, KT 50% 등 모두 97억 원을 들여 전체 가구의 96%에 대한 초고속인터넷 기반시설을 마무리했다. 사업 1차연도인 2006년에 528마을을 1만2천462가구, 2차연도인 2007년에 762마을을 1만1천523가구 등 총 1천290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 기반시설을 완료했다.

나주시가 최근 우리은행과 지역 내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투자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올해에는 광케이블 설치가 어려운 산간과 섬 등 오지에 기존 단방향(1Mbps)을 양방향(2Mbps) 위성 방식으로 개선해 소외 지역에서 인터

넷 사용이 더욱 손쉽게 됐다.

전남도는 내년에 6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543개 마을 1만992가구에 대해서도 초고속 인터넷 기반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채희증기자 chae@

내년까지 97억 들여 망 구축 마무리

내년까지 97억 들여 망 구축 마무리

네이버 사용이 더욱 손쉽게 됐다.

전남도는 내년에 6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543개 마을 1만992가구에 대해서도 초고속 인터넷 기반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채희증기자 chae@

내년까지 97억 들여 망 구축 마무리

내년까지 97억 들여 망 구축 마무리

네이버 사용이 더욱 손쉽게 됐다.

전남도는 내년에 6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543개 마을 1만992가구에 대해서도 초고속 인터넷 기반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채희증기자 chae@

내년까지 97억 들여 망 구축 마무리

내년까지 97억 들여 망 구축 마무리

네이버 사용이 더욱 손쉽게 됐다.

전남도는 내년에 6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543개 마을 1만992가구에 대해서도 초고속 인터넷 기반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채희증기자 chae@

내년까지 97억 들여 망 구축 마무리

내년까지 97억 들여 망 구축 마무리

네이버 사용이 더욱 손쉽게 됐다.

전남도는 내년에 6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543개 마을 1만992가구에 대해서도 초고속 인터넷 기반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채희증기자 chae@

내년까지 97억 들여 망 구축 마무리

내년까지 97억 들여 망 구축 마무리

네이버 사용이 더욱 손쉽게 됐다.

전남도는 내년에 6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543개 마을 1만992가구에 대해서도 초고속 인터넷 기반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채희증기자 chae@

내년까지 97억 들여 망 구축 마무리

내년까지 97억 들여 망 구축 마무리

네이버 사용이 더욱 손쉽게 됐다.

전남도는 내년에 6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543개 마을 1만992가구에 대해서도 초고속 인터넷 기반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채희증기자 chae@

내년까지 97억 들여 망 구축 마무리

내년까지 97억 들여 망 구축 마무리

네이버 사용이 더욱 손쉽게 됐다.

전남도는 내년에 6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543개 마을 1만992가구에 대해서도 초고속 인터넷 기반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채희증기자 chae@

내년까지 97억 들여 망 구축 마무리

내년까지 97억 들여 망 구축 마무리

네이버 사용이 더욱 손쉽게 됐다.

전남도는 내년에 6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543개 마을 1만992가구에 대해서도 초고속 인터넷 기반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채희증기자 chae@

내년까지 97억 들여 망 구축 마무리

내년까지 97억 들여 망 구축 마무리

네이버 사용이 더욱 손쉽게 됐다.

전남도는 내년에 6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 543개 마을 1만992가구에 대해서도 초고속 인터넷 기반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채희증기자 chae@

내년까지 97억 들여 망 구축 마무리

내년까지 97억 들여 망 구축 마무리